



배경사





제29장 바울의 성령 이해(5)

Jesus

V. 중보자로서의 성령(로마서8:26~27)

- ▶ 서론
- ▶ 로마서 8:26~27의 주석
 - 1)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의 탄식
 - 2) 성도들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
 - 3) 성령의 중보의 기도
 - 4) 로마서 8:28~39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
 - 5) 성령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중보
- ▶ παράκλητος에 관한 문자적 분석
- ▶ 삼위일체의 하나님
- ▶ 결론





로마서 8:26~27의 주석

Jesus

“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
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
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
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
마음을 살피시는 이가
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
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
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”
(로마서 8:26~27)





1. 서론

▶ 로마서 8:26-27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중보의 사역을 그리고 있다.

▶ 중보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, 그리스도, 성령의 상호 작용과 상호 관계는 신성의 삼위일체적인 내적인 협력이다.





2. 로마서 8:26~27의 주석 ●

1)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의 탄식

▶ 피조물의 탄식

20-21절 : 피조물들은 인간이 구속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,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다.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갈망한다.

▶ 그리스도인의 탄식

-23절 : ‘성령의 처음 열매’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으로 신음

-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, 아직 온전하게 양자되지 못하였으며, 이제 곧 나타날 영광에 대해 참음으로써 기다릴 것을 강조





2. 로마서 8:26~27의 주석 ●●

2) 성도들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

▶ 8:26절

- ‘연약함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고통스러우며 몸의 구속을 고대하고 있음을 암시
- 기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.
-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으며, 인간은 ‘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’이라는 것을 ‘연약함’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.





2. 로마서 8:26~27의 주석

3) 성령의 중보의 기도

▶ 8:27절

- 마음을 살피시는 이 -> 전지하신 하나님
- 하나님께서 성령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들으신다
- 광신적 헬라주의자와 유대주의자 - 자신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데 있어서 무력하다고 생각지 않고, 성령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없다고 생각함
- 바울은 기도할 때 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안에 있으며, 그것은 중보에 있어서 성령, 그리스도, 하나님의 협력 안에서 나타난다고 이해함





2. 로마서 8:26~27의 주석

4) 로마서 8:28~39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-1

▶ 28절

모든 것 - 심지어 핍박이나 죽음 자체까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들을 돕도록 만들어졌다

▶ 29~30절

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우리의 목표를 정해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주시고 후에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

▶ 31~32절

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





2. 로마서 8:26~27의 주석

4) 로마서 8:28~39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-2

▶ 33~34절

지고한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

▶ 35~37절

아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며, 환난에 직면하고 있지만,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들을 깨끗하게 견디어 냄으로써 넉넉히 그 고난을 정복한다

▶ 38~39절

여기 언급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위협하지만,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



2. 로마서 8:26~27의 주석

5) 성령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중보

- ▶ Brownson : 성령의 중보의 목표는,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에 확고한 근거를 두고서,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- 성결케 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이다
- ▶ 우리는 성령의 중보에 의하여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갈 수 있다.
- ▶ 바울 : 성령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상응하여, 각각 모두가 우리의 의롭게 됨과 성결케 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.





3. *παράκλητος*에 관한 문자적 분석

▶ 하나님 앞에서의 변호인을 가리킴

▶ 또 다른 보혜사 -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보혜사가 되심을 전제

▶ 보혜사 예수님 -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중보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

▶ 보혜사 성령님

- 예수님께서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심

- 시험 받을 때 성령이 도우실 것을 약속하심





3. *παράκλητος*에 관한 문자적 분석 ●●

- ▶ 보혜사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
 -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
 -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중보와 성령님의 내재하시는 중보가 상응함
 - 중보에 있어서 하나님, 예수님, 성령님의 삼위께서 협력하심



4. 삼위일체의 하나님

▶ 바울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

각 위격은 구별된 사역을 하시되, 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삼위의 협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일치(unity)를 보인다

▶ 구약에서 나타난 삼위일체의 증거들

- 엘로힘(하나님) : 남성 복수 어미
-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
- 히브리어에서 하나를 나타내는 두 단어
 1. 에하드 : 복합적 하나를 의미 (창 2:24; 겔 37:19)
 2. 야히드 : 절대적 단일성 (창 22:16)





4. 삼위일체의 하나님

▶ 바울의 삼위일체

-고후 3:17-18

하나님의 영광 - 그리스도의 영광

하나님의 형상 - 그리스도의 형상

부활하신 그리스도 - 성령

-성부 하나님, 성자 그리스도, 성령 사이에 뚜렷한 구분과 독특한 동일시가 나타남

-다메섹 체험 -> 삼위일체의 인식 -> 사도 사명

-새 창조 :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- 어둠 속에 비추인 빛





5. 결론

로마서 8:18-25

-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피조물이 해방될 새 창조와 부활에 대한 소망의 약속

로마서 8:26-27

-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
-기도할 때조차도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

바울이 이해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보

-각각 구별된 사역을 가지고 있으나, 본성과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심
-삼위일체적인 협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행위를 가리킴

